



즉시 배포용: 2020년 3월 2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상원 경기 부양 법안에 관한 DANI LEVER 커뮤니케이션 디렉터의 성명서

"주지사는 오늘 상원 법안이 뉴욕주에 대한 '끔찍한' 법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주장을 정당화하는 사실 정보입니다.

초기 보고서를 바탕으로 뉴욕주 정부는 약 31억 달러를 받습니다. 주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1.9%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낮은 금액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48개 주에서는 뉴욕주보다 더 높은 비율의 자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사우스다코타는 예산에서 17.9%에 해당하는 자금을 받습니다.

뉴욕주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은 비율의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 주에서는 텍사스의 1,031건의 30배에 달하는 확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중대한 정치 조작이라는 점이 명백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확진 건수가 단 40건으로 확인된 와이오밍은 연방 정부로부터 주 예산의 17.1%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뉴욕주가 미국의 다른 어떤 주보다 연방 정부에 더 많은 기여를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는 건전한 정책에 대한 정치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